



박소현의 섹.시.토크

새해를 맞이하며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것은 남편에게 좀 더 섹시한 아내가 되겠다는 결심이다. 몇 주 전 오랜만에 가진 잠자리에서 남편이 한 마디 한 것이 결정적인 일인이 되었다.

나름대로 만족스런 섹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하는 내내 입을 꼭 다물고만 있어? 화 난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럼 벌리고 있어?”

“좋은 자연스럽게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몇 년 동안 소리 한번을 안 내? 내가 그렇게 못해?”

갑자기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남편이 못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잠자리에 불만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런데 단지 관계 도중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다.

“내가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잖아. 그래서 그래.”

“당신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그냥 몇 년을 해도 그다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재미가 없어서 그래.”

이 말은 더 충격이었다. 재미가 없다니, 대체 이런 소리를 하는 저가 무엇일까? 남편은 그대로 돌아누워 잠이 들었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잠을 설치며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다. 결혼 초기, 남편은 이것 저것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 노력했지만 그녀가 매번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새해에는 좀 더 섹시한 여자가 되겠다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일단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우선 인터넷을 뒤져 아동이라는 것을 어렵게 찾아냈다. 아동에 등장

하는 여자들의 흉내를 한번 내보려 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평범한 유부녀가 흉내 낼 것이 아니다. 그녀들처럼 몸을 비틀고 교성을 지를 자신이 없다.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평소 남편과의 잠자리가 끝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특히 남편을

강도에 따른 소리내기 친구는 전문가처럼 지시를 내렸고 그때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친구의 평가를 받았다

꿈쩍 못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필살기가 있다고 큰 소리치던 친구였다.

오랜만에 전화해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참 부끄러웠지만, 그녀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힘을

계 용기를 냈다. 그녀의 고백을 전해 들은 친구가 너무 웃어대는 바람에 그냥 전화를 끊고 싶었지

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친구는 몇 가지 팁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약하게 신음소리를 내야 해. 그것도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남편 행동에 따라 박자를 잘 맞춰서.”

그녀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수화기 너머로 약한 신음소리를 내 보았다.

“너무 작아. 그래서 어디 귀에 들리겠니?”

친구는 강도에 따른 소리내기에 대해 마치 전문가처럼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고, 그때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친구의 평가를 받았다. 한참 그렇게 수화기를 들고 기묘한 신음소리를 흘러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진다. 고개를 돌려보니 문 앞에 남편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어떤 놀이야?”

“아니야, 친구야, 친구.”

“친구 누구? 당신 친구랑 바람났어?”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전화버튼만 누르면 오해가 쉽게 풀리겠지만, 그러나 친구에게 이런 레슨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려야 한다면 말인가. 그녀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연애칼럼니스트>

은밀한 레슨

리빙 센스

눈썹 타입별 뷰러 사용 방법

① 속눈썹이 짧고 뺨뺨한 타입
속눈썹이 짧고 뺨뺨할 경우에는 뷰러로 여러 번 올려도 금방 속눈썹이 처지게 된다. 이럴 타입은 마스카라가 마른 다음, 전기 고데기로 한 번 올려주면 컬링력이 유지된다.

② 속눈썹에 힘이 없는 경우
속눈썹이 힘이 없을 때는 마스카라를 바르던 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타입의 경우 뷰러를 거꾸로 해서 속눈썹 뿌리 부분을 집어주면 뿌리 부분에 훨씬 힘이 생겨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 아래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바르는 경우
아래까지 마스카라를 바르는 편이라면 아래 속눈썹도 뷰러를 거꾸로 해서 집어준다. 눈썹 밑 피부와 간격을 띄어주는 효과가 있어 잘 번지지 않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2월 7일 丁未)

36년생 결경은 신중하게. 48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면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60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72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84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행운의 숫자: 11, 41

3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49년생 뜻밖의 재물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라. 61년생 말리서 친구가 오니 즐거우라. 73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 85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12, 30

38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커리큘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0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람거래가 될 수도 있다. 62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74년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봐라. 행운의 숫자: 18, 35

39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51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63년생 오전은 흥하나 오후는 길하다. 75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20, 38

4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삼 것이다. 52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64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6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행운의 숫자: 21, 32

41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53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65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77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행운의 숫자: 22, 34

42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다. 54년생 남과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66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78년생 부부간에 다양한 시간을 마련하라. 행운의 숫자: 01, 43

43년생 불의의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55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67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79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2, 31

44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56년생 속전 속결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68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80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따라. 행운의 숫자: 14, 28

45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을 마라. 57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69년생 오후에 화재를 주의하라. 81년생 외려내려 내적인 것이 마음을 쓰라. 행운의 숫자: 17, 16

46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8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보라. 70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2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23, 42

47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59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라. 71년생 춤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지만 한다. 83년생 친척의 보증을 서지 마라 흥한일이 생길라. 행운의 숫자: 2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품문의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연말, 연예계 빛낸 스타들 네티즌 집중 관심

올 한해 연예계를 빛낸 스타들이 연말 집중 하이라이트를 받았다. 각 방송사 주간의 연예 부문 시상식이 잇달아 열리면서 연예계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방송인 강호동은 KBS 연예대상 대상 수상 경쟁자 유재석이 S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후 밝았던 소감을 똑같이 밝혀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기부 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던 '기부 천사' 문근영은 지난 31일 열린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최연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근영은 눈물로 수상소감을 밝히며 네티즌의 주목을 끌었다.

2009년 '기축년(己丑年)' 새해의 해가 동실 떠오르면서 새해와 관련한 단어들인 인기 검색어로 등장했다.

많은 네티즌은 해맞이 명소와 기축년 토정비결 등을 검색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다. 정확히 1월 0시 서울에서 태어난 새해 첫 아기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중동에 또 다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기습공격을 시작하면서 400여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날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공습 중단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무산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중동 위기는 새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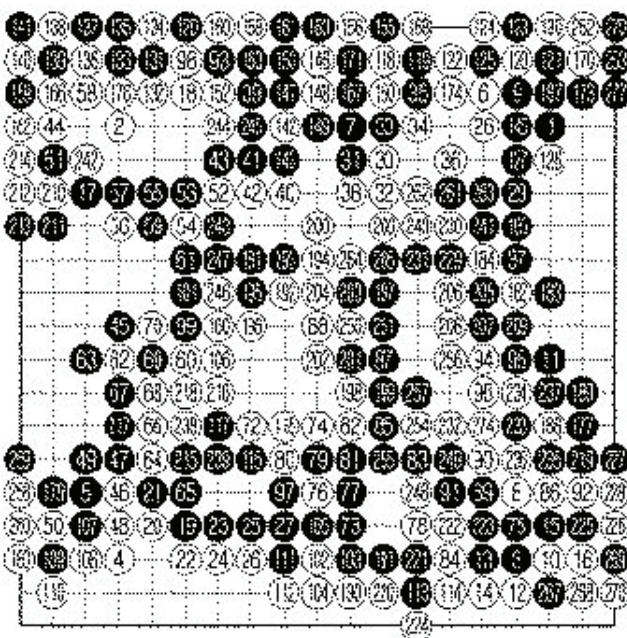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립뉴스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완벽한 승리

일반부 결승 총보 (1~280)
白 송홍석 7단 黑 이상헌 6단
(경기) (서울)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바둑은 이상헌의 4집 반 승이었다. 객관적인 평가나 최근 아마 바둑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송홍석의 기량으로 본다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인데 그것은 그만큼 아마강자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었다는 것이고 또 연구생들의 실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바둑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경기도가 서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대신인데 신예인 이상헌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일반부에서 예상밖의 쾌승을 거둬서 서울팀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송홍석의 패인은 후배를 맞이하여 부담을

가진 듯 소극적으로 국면을 운영한데 있었다. 백 50으로 너무 일찍 좌하귀를 지킨 수도 좌변을 침입할 시기였으며 우하귀의 점전에서 백 84로 남은 수도로 91에 두어 흑 낙점을 크게 포위할 곳이었다. 이후로는 이상헌의 독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세를 승리로 연결하는 반면운영이 돋보이고 있다. 비록 송홍석이 승부처에서 머뭇거리기는 했으나 이상헌이 보여준 정확하면서도 완벽한 마무리는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보여준 환판이다. 백 280 수 끝. 흑 4집 반 승.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223>

오하오우 니혼고 <1223>

니하오 쑹구위 <300>

한자 이야기 <940>

Where do you buy groceries?
어디서 식료품을 샀니까?

A: Where do you buy groceries?
B: Usually at Grand grocer's
A: Is that close?
B: Sure. It's just around the corner.

A: 어디서 식료품을 샀니까?
B: 대개 그랜드 야채 가게에서요.
A: 가깝나요?
B: 그렇죠. 바로 코너를 돌면 있는데요.

- \* groceries : 식료품
\* close : 가까운
\* just : 바로 (강조어)
\* around : ~을 돌아서

今日だけは勤辯(かんべん)してください.
오늘만은 봐주세요.

A: 田村(たむら)さん, するいですよ.
B: ごめんなさい. 今日だけは勤辯(かんべん)してください.
A: だめですよ. 一人で抜(ぬ)けるなんて.

A: 타무라 씨, 치사해요.
B: 죄송해요. 오늘만은 봐주세요.
A: 안돼요. 혼자서 빠지다니.

するい: 교활하다, 간사하다, 약삭빠르다
勤辯(かんべん): 용서함
抜(ぬ)ける: 빠지다

快要开始了.
곧 시작한다.

A: 电影快要开始了.
diànyǐng kuài yào kāishǐ le.
디엔영 꾸어위 야오 기어스 쉐

B: 现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차현재이 지 디엔?

A: 七点十分.
qī diǎn shí fēn?
치 디엔 스 쉐?

B: 快进去吧.
kuài jìnqù ba.
꾸어위 쉐 바.

A: 영화 곧 시작하려 해.
B: 지금 몇시야?
A: 7시 10분.
B: 빨리 들어가자.

电影 [diànyǐng] 영화
快进去 [kuài jìnqù] 곧(빠)지(빠)아) ~하다
进去 [jìnqù] (밖에서 안으로)들어(가)다

康衢煙月(강구연월)
오거리 강, 네거리 구, 연기 연, 달 월

강구연월(康衢煙月)의 강구(康衢)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통오달(四通五達)의 변화한 큰 길거리의 대낮 풍경이고, 연월(煙月)은 저녁 갖는 굴뚝 연기가 달을 향해 피어오르는 풍경으로, 살기 좋고 평화로운 태평시대를 비유한다.

중국에서서 성왕(聖王)의 시작을 요임금에 두고 있다. 요임금은 자신의 정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궁중에서 사람들을 공으로 불러 물어보았지만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요임금은 직접 변장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 보았다. 큰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요임금의 성덕(聖德)으로 우리가 편히 살고 있다'는 내용의 노래를 들었다. 이것을 '강구연월문동요(康衢煙月聞童謠)'라고 한다. 다시 길을 가다 요임금은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말린 고기를 입에 가득 물고 배를 두드리며 말하길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짓고 해지면 잠을 자는데 정사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하였다. 이것을 '함포고복(含哺鼓腹) 격양가(擊壤歌)'라고 한다. 여기서 유래하여 '강구연월'과 '함포고복'은 태평성대(太平聖代)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올해는 '강구연월 문동요'의 해가 되길 바란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